

국제

세계 경제 '잃어버린 10년' 덮치나

美 디플레 공포...아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동반 침체로 이끌면서 90년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를 촉박한 미국이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상품이 팔리지 않아 가격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디플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침체로 판로가 막히면서 90년대말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오랜 침체를 겪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지출이 17년만에 처음 3.1%나 줄면서 0.3% 감소해 경기침체가 걱정사실되고 있다.

특히 소비의 위축은 상품의 재고를 쌓이게 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감원을 불러와 소비를 더 줄이게 하는 악순환으로 불려올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

일 많은 국가들에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새로운 위험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국제유가를 10월에만 33% 급락하게 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다른 상품·서비스 가격도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인플레이션은 정책 당국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제활동과 수요를 악화시켜 잡을 수도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과거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더라도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당국이 금리를 인하여 경제성장률 유지를 함께 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감원을 불러와 소비를 더 줄이게 하는 악순환으로 불려올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

상되고 있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우리가 진짜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위험은 몇 년간의 나쁜 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이번에는 90년대말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년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을 비롯해 다른 선진국에 수출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아시아 국가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금융위기로 큰 고통을 겪어 수출을 바탕으로 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아시아 경제의 하강이 90년대말처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세계에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美 대선 D-1

첫 흑인 대통령 '카운트 다운'

오바마, 지지율 5~10%p 앞서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현재(현지시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매케인을 5~10%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어 선거 막바지에 몰린 존 매케인의 역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추이를 가장 정확하게 추적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8%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는 처음이어서 대세는 오바마 쪽으로 확실해 기운 것으로 여겨진다.

로이터-조그비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은 50% 대 43%로 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오바마 51%, 매케인 47%로 4%포인트였다.

오바마는 대선 승패를 가르는 기준인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도 이미 과반 270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CNN방송은 오바마가 291명, 매케인이 160명의 대의원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정치전문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티क्स'는 311명 대

141명으로 오바마가 더블스코어 이상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실제 30여 개 주에서 전체유권자의 30% 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조기투표에서 오바마는 매케인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앞서온 조기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대선일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바마가 이런 추세대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 건국 232년만에 처음으로 흑인출신 대통령에 당선하게 된다.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오바마 효과'에 힘입어 공화당을 크게 앞질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폴스타더컴'에 따르면 모두 35명을 선출하는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지역에서 승기를 굳혀가고 있어 13개 지역에서 승산이 있는 공화당을 제압했다. 접전지역은 4곳이다.

총 435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하원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우세 예상지역에서 245곳 대 166곳으로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다. 경합지역은 24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1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서 수만명의 지지자를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책 변화 주목

대선 이후 차기 미국 정부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난 8년을 이어온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한미동맹의 발전기조는 오바마 후보나 매케인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처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두 후보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와의 '정서적 코드'에서 부자연선 현상이 노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측 "한·미 FTA 조정 후 비준" 매케인측 "대북관계 압박·제재 필요"

그러나 북한을 개입시켜놓고 보면 다소 상황이 달라진다.

전 시점에서 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노선이 '대화보다는 압박'을 선호하는 공화당 성향보다는 '체재보다는 협상'을 지향하는 민주당에 가까운 편이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과 흐름을 달리하지만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북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케인 후보는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매케인 후보측은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합의가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압박과 제재라는 옵션을 테이블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오바마 진영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두 후보가 현재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분야로 꼽을 수 있다.

오바마 후보의 경우 한·미간 불균형 무역분쟁 소지가 있는 자동차 교역과 쇠고기 등과 같은 문제가 조정된 후에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면 매케인 진영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노이 홍수로 기능 마비...17명 사망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24년만에 최대 물난리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17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냈다.

특히 하노이를 포함한 인근 북부지방에 지난 30일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 1일까지 계속돼 하노이의 강수량이 420mm에 달했고 부근 하동성도 627mm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평균 지면이 홍강보다 낮고 하수와 배수시설이 미비한 하노이의 경우 31일에 이어 1일에도 도시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고 가옥이 침수됐다.

현지 국립기상대는 현재까지 사망 또는 실종자는 모두 17명이라고 집계했다.

폭우로 인해 31일 하노이시 대부분 관공사와 기업에는 출근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나마 출근한 사람들도 서둘러 귀가해야 했다. 토요일인 1일에는 교통 마비에 이어 전기마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립기상대는 하노이에서만 1만3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물이 넘겨져 9천ha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전체 피해액이 3조동(미화 1억7천800만달러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2일 오전들어 하노이시에서 비가 멎었으나 시내에 들어간 물이 빠져지않아 대형 버스를 제외한 차량들은 거의 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은 상태. 연합뉴스

미군, 파키스탄 접경 마을 잇단 미사일 공격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31일 파키스탄과 아프간 접경 마을에 포사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최소한 27명이 숨졌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이라크인으로 알-카에다 주전 간부인 아부 아카시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미군측 주장과는 무관하게 이날 파키스탄 북 미르 알리 마을에 2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20여명이 숨진데 이어 남 와지리스탄의 와나 마을에도 미사일 2발을 발사, 외국인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평양 대미방직은 개성공단 이은 성과"

DJ, 이례적 격려사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대미방직 합영회사 준공식에 이례적으로 격려사를 보내 "분단 60년사에서 남북 경제인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민족의 패기"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 경제인 사이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한을 평양 선교구역 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남북 투자사인 안동대미방직의 김정대 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평양대미방직은 개성공단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평양대미방직은 안동대미방직과 북측 세별총회사가 절반씩, 총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세워 공동 경영하는 공장으로, 평양에 남북 합영회사가 선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주)옥션코리아 Real Estate Ad with various property listings including '리먼시설', '투목', '아파트', '다주택', '단지', '공장', '다세대(빌라)', '농가', '점점', '기타' categories.

태양열 보일러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Ad for Daejin Solar with text: '태양열 보일러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지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면 태양열 연료비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태양열난방+온수기' and contact info: 'Daejin Solar (주)대진솔라'.